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강미숙**·김하나***·박선영****

초 록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자살사고 척도, 속박감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하였다.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 20대여성

* 본 연구는 강미숙(2022)의 차의과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차의과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kgbkms42@naver.com)

*** 교신저자: 차의과학대학교 교수(khan1486@cha.ac.kr)

**** 공동저자: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 사람 소장(pp9901@hanmail.net)

I. 서론

20대 여성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이나 청소년, 노인 등의 다른 대상에 비해 낮은 자살률을 보여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20대 여성의 자살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장숙량(2020)은 한국 청년의 높은 자살률은 코호트 효과이며, 특히 여성 청년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연령효과로 인해 노년기가 높은 자살률을 보여 그간 청년의 자살문제가 간과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코호트 효과를 보이는 청년세대가 고령화가 되어 연령효과와 복합 상승 작용을 할 경우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며 청년 자살이 높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 전반적인 보호를 재설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총 2만 2,572명 중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고, 성별에서는 여성이 1만 4,148명으로 62.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1a). 특히 여성 자살시도자 중 20대의 비율은 32.6%로 전체 연령과 성별 중에서 가장 높았고, 2019년의 26.7%에 비해서도 5.9% 증가를 했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성별,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비율에서 20대 여성은 32.4%로 전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통계 결과는 20대 여성의 자살증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자살사고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행동으로는 표출되지 않은 심리적 증상이며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 이전에 나타나는 인지적 측면을 말한다. 자살사고는 자살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자살의 과정에서 가장 앞서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손신영, 2014; 안세영·김종학·최보영, 2015; 육성필, 2002; 장선희·이미애, 2010). 20대 여성의 경우, 자살률의 증가도 보이고 있지만, 자살의 주요 예측 변인인 자살사고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는 17.3%로 30대 남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20대 여성의 자살사고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청년층의 자살사고 결정요인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20, 30대 여성 청년들의 자살사고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우울 증상, 이웃이나 친구와 교류가 적고 저조한 사회활동 참여, 무직 상태, 낮은 가구소득, 일상생활 스트레스, 음주, 흡연, 건강상태 곤란, 낮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김재우,

2018), 코로나19 이후에 2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용불안과 경제적 문제는 우울의 심각성과 자살사고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선, 2021; 박지숙·김화연·이숙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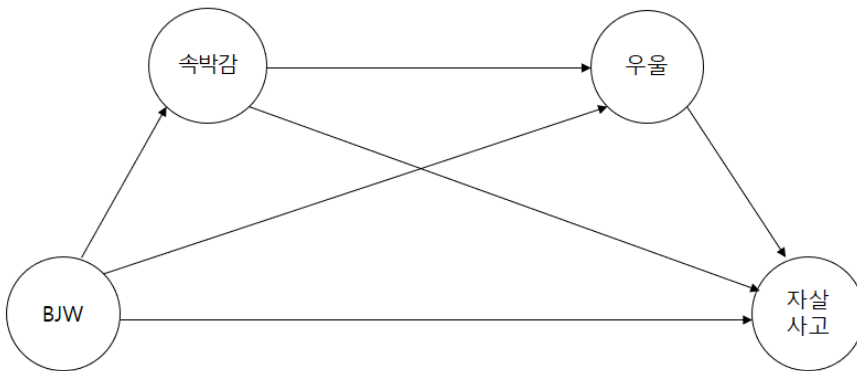
한편, 자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의 주요 변인인 우울은 자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보영·이정숙, 2009; 안세영·김종학·최보영, 2015; 이희용, 2020; 홍세희·정송·노연경, 2016; Hunt et al., 2006). 자살사망자 사후 부검연구에서는 이들 중 60%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 및 기타 정서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홍진, 2011), 오병훈(2006)도 자살자의 50~87% 정도가 자살 당시 우울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울과 자살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와 통계자료 등에서 자살에 대한 우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만, 자살행동을 보인다고 하여 모두 우울한 것은 아니며, 우울함이 심하다고 하여 다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Ayyash-Abdo, 2002; Lewinsohn, Rohde & Seeley, 1996). 따라서 자살문제에 접근할 때 자살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보다 확장되고 통합된 관점으로 자살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이다(김현수 외, 2022). 자살을 개인의 치료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자살위험을 높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또 자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청년 실업률의 장기화 속에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기회 균등 및 공정성의 문제 등을 마주하고 있다(양선미, 2019).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고, 개인이 보이는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이수비·신예림·윤명숙, 2022).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조사’는 부모의 자산이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청년세대의 현실은 공정한 출발, 기회의 평등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였다(한귀영, 2020).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20대 여성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속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속박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사건이 지속될 때 이러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 우울과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주

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윤소미, 2020; Taylor et al., 2011). 자신이 사는 사회가 불공정하게 인식되는데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여 속박감을 느끼면 이는 우울과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20대 여성이 지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려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20대 여성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20대 여성들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사회로의 진출을 이루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최현주·신혜진, 2018).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감과 인생의 목적의식을 확립하고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발달의 과정

을 지난다(양선미, 2019).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들은 현실 사회를 직면하면서 사회적 장벽 앞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일상경험과 여성 청년 자살에 대한 의견을 모은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절망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청소년 시절 경쟁 속에서 노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우고, 실제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하고 보니 남녀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며, 취직에서도 계약직이나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입구가 좁은 현실에서 미래가 암담하다는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김현수 외, 2022). 현재의 20대 여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원하며, 가사와 양육 부담보다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삶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김은지 외, 2020). 남성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지만, 현실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가 적고, 같은 학교 같은 전공 출신이라도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창환·오병돈, 2019; 김희선, 2021). 또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20대 여성들은 불공정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이렇듯 20대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 사회는 차별과 불공정으로 녹록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당함과 불공정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든 노력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이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 상황을 직면할 때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연관이 있어 우울, 불안, 울분, 화병,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하·김도연·김수용, 2016; 김은하·전주원, 2019; 윤소미, 2020; 최소희, 2021; 최현주·신혜진, 2018).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20대 여성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남영, 2020). 세상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우울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 Holz, 2010; Otto et al., 2006; Scholten, Velten, & Margraf, 2018).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자살위험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었고, 자신이 하는 노력에 비해 받는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황의갑, 2011; 이수인, 2016).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Bai et al., 2021).

한편, 사회경제적인 조건이나 불평등, 차별의 사회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주관적 판단이 정신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성연주·김지애, 2017; Lyu & Sun, 2020). 실제적인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바로 정신건강의 위험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인식과 지각, 감정이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대 여성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세상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당함을 감내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겠지만,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것이다(노민정, 2021). 하지만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큰 반면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게 되면 부당한 상황에 갇힌 듯한 속박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탓에 걸린 듯한 지각이 자살행동을 발달시킨다고 하여 속박감은 자살을 예측하는 지표로 설명된다(양선미, 2019).

속박감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데, 우울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므로 우울과 관련될 수 밖에 없다(윤소미, 2020). 스트레스 상황은 우울의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그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우울과 더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속박감이 지각되는 사건에서 우울의 유발 확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Brown, Bifulco & Harris, 1987; Brown, Harris & Hepworth, 1995). 속박감이 주변환경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지과정을 활성화시켜 실제로 다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면서 우울이 유발되는 것이다(Sloman & Gilbert, 2000).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이 우울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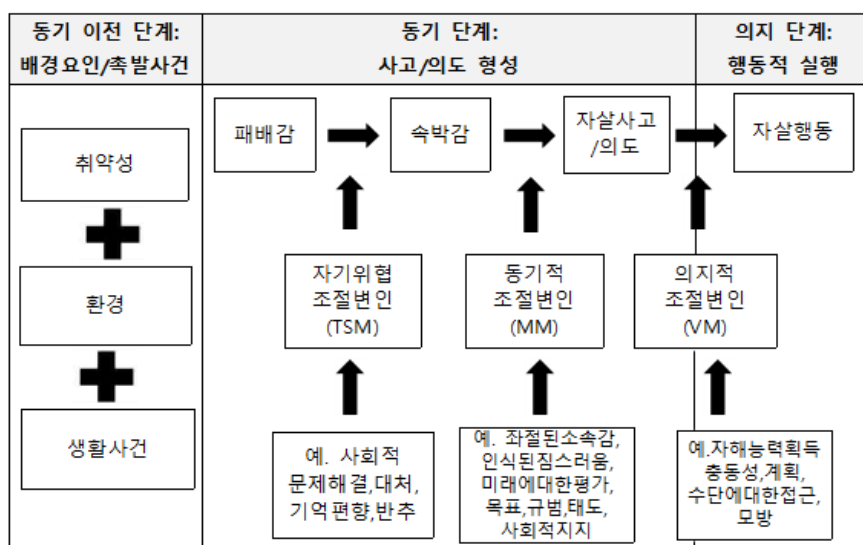
우울과 자살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 되고 있고, 자살사고와 자살행동 모두 우울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병금, 2009; 배진희, 2009; 최바울 외, 2011; Brådvik et al., 2008; Gijzen et al., 2021; Goldney et al., 2003). 우울증 경험 유무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요인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사고를 크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30대 초기성인의 경우, 우울이 증가하면 자살사고가 27.0%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명원, 2012; 전현규·심재문·이건창, 2015).

3.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과 자살사고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IMV)은 자살현상을 설명했던 기존의 이론적 기반들을 통합하는 시도로 제안된 모형이다. O'Connor(2011)에 의하면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동기 이전 단계, 동기 단계, 의지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이전 단계는 자살행동과 관련된 생물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하는데, 취약성, 환경, 생활사건이 배경요인과 촉발사건으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동기 이전 단계의 요인은 동기 단계에 영향을 주는데, 동기 단계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의도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동기 단계에서는 패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사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지만 탈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한다(박정은·권해수, 2020). 마지막으로 의지단계는 자살의 행동적인 실행 단계로, 의도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있다.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은 자살의 원거리 요인부터 행동의 실행까지 관련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살사고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O'Connor, 2011).

통합된 동기-의지 모형을 바탕으로 볼 때, 20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는 속박감으로 이어지고, 자살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 단계에서 핵심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속박감과 자살사고 이외에 자살에 밀접한 정서적 요인으로 익히 알려

진 우울을 모형에 추가하여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경로를 확인하려 한다.



자료: O'Connor, R. C.(2011). Towards an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preven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 181-198.

[그림 2]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MV)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2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65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1개를 제외하고, 354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설문에 포함된 연구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연령은 27~29세가 210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26세가 109명(30.8%), 20~23세가 35명(9.9%)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236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37명(10.5%), 대학교 재학이 32명(9.0%), 대학원 이상과 고졸이 각각 26명(7.3%), 22명(6.2%)으로 밝혀졌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314명 88.7%, 기혼이 40명 11.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Lucas와 동료들(2007)이 개발하고, 김은하 외(2017)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와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각 4문항씩 8문항, 분배와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각 4문항씩 8개 문항이다. 개인적 믿음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하는 반면, 일반적 믿음은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한다(김은하 외, 2017).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은 각각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나뉘는데, 분배공정성은 노력 등의 대가인 보상 또는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하고, 절차공정성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절차 등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믿음이다(김은하 외, 2017).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나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일관성을 위해 K-BJWS를 역채점하여 활용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최현주와 신혜진(201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95,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86,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87,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89,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91로 나타났다.

2) 속박감 척도

속박감은 Gillbert와 Allen(1998)이 개발하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현재 당면한 부정적 상황, 관계,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이종선·조현주, 2012).

속박감 척도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있다. 내적 속박감은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는 깊은 구렁이에 빠져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와 같은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 속박감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나는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정은과 권해수(2020)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내적 속박감이 .92, 외적 속박감이 .94로 나타났다.

3) 우울척도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와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K-CES-D)를 활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된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수진과 김종남(201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으로 나타났다.

4) 자살사고 척도

자살사고는 Reynolds(1988)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신민섭(1992)이 변안하고 서미순(2005)이 개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다’, ‘나는 때때로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한다’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은영 외(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과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6번을 활용하여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을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여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왜도가 2미만, 첨도가 7미만이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정규성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속박감($r=.454, p<.001$), 우울($r=.369, p<.001$), 자살사고($r=.33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속박감도 우울($r=.643, p<.001$), 자살사고($r=.681,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

또한 자살사고($r=.51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측정 변인 간 기술 통계량 및 상관분석

($n=354$)

	1	2	3	4
1. BJW	—			
2. 속박감	.454***	—		
3. 우울	.369***	.643***	—	
4. 자살사고	.331***	.681***	.518***	—
평균	2.15	1.36	.76	.81
표준편차	1.02	.97	.37	.87
왜도	.14	.43	.83	1.09
첨도	.02	-.98	.29	.12

*** $p<.001$

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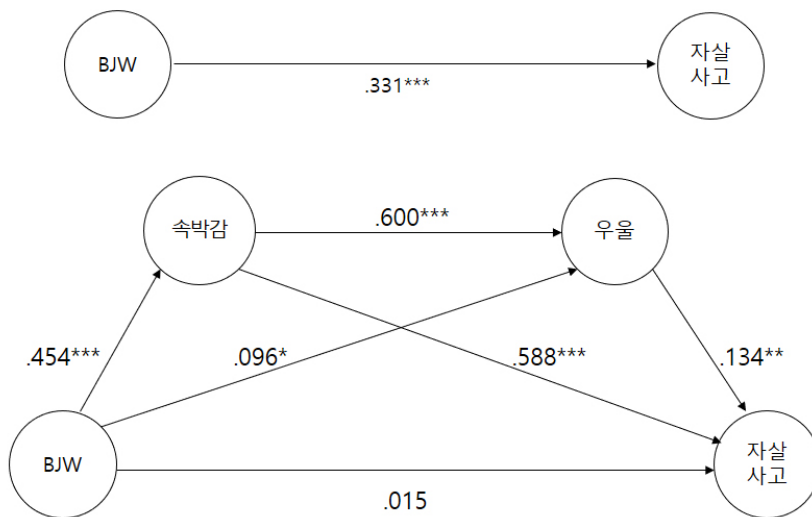
〈표 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

경로	β	B	SE	t	95%신뢰구간		R^2	F
					LLCI	ULCI		
BJW→속박감	.454	.432	.045	9.568***	.344	.521	.206	91.553***
BJW→우울	.096	.035	.017	2.112*	.002	.068	.421	127.798***
속박감→우울	.600	.229	.017	13.158***	.194	.263		
BJW→자살사고	.015	.012	.037	.331	-.061	.086	.475	105.428***
속박감→자살사고	.588	.528	.048	11.064***	.435	.622		
우울→자살사고	.134	.316	.120	2.636**	.080	.551		

* $p<.05$, ** $p<.01$, *** $p<.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속박감($\beta=.454$, $p<.001$)과 우울($\beta=.096$,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살사고($\beta=.015$)에는 유의하지 않

았다. 속박감이 우울($\beta=.600$,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박감과 우울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속박감($\beta=.588$, $p<.001$)과 우울($\beta=.134$, $p<.01$)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Hayes, 2009;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본 연구의 결과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beta=.331$, $p<.001$)보다 속박감과 우울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beta=.015$)이 감소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계수

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단순매개 효과와 이중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경로계수의 상한

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BJW → 속박감 → 자살사고	.229	.031	.170	.292
BJW → 우울 → 자살사고	.011	.008	-.001	.030
BJW → 속박감 → 우울 → 자살사고	.031	.015	.003	.064
총 간접효과	.271	.032	.212	.334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의 매개 효과($\beta=.229$, .170~.292)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beta=.031$, .003~.064)의 이중매개 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11$, -.001~.030). 우울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나, 속박감을 거쳤을 때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여성은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우, 속박감이 강해지고 이때 우울을 경험하여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수준에 따라 자살위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Yang과 Shim(2022)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의 정도는 낮아진 반면,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경우에는 자살위험의 정도가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현주와 신혜진(2018)의 연구와 윤소미(2020)의 연구에서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을 경우 속박감은 낮아지지만,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게 되면 속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정적 상관은 신혜진(2018), 정선희(2021), 김은하와 김수용(2017)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의 유의한 관련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정신건강 및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보인 유의한 정적 상관은 이종선과 조현주(2012), 김송희(2015)와 Rasmussen 외(2010)의 결과와 일치하며, 속박감이 매개요인으로 자살사고를 높인다는 여러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였다(김정호·홍혜영, 2016; Tarsafi, Kalantarkousheh & Lester, 2015; Teismann & Forkmann, 2017). 우울과 자살사고의 유의한 정적 상관 또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박병금, 2009; 배진희, 2009; 최바울 외, 2011; Bradvik et al., 2008; Gijzen et al., 2021; Goldney et al., 2003).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중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의 경우,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게 되면 속박감을 느끼고 이는 우울로 이어져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신념인데, 이러한 신념은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을 한다(노민정, 2021). 하지만 실제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신념은 지장을 받게 되고,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각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거나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동기가 사라져 심리적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은 개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는데, 욕구에 반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지각은 강한 속박감을 초래할 수 있다.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지적 요인인 속박감은 정서적으로 우울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자살사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사고를 매개하는데 있어 속박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박감과 우울의 단순매개 효과의 결과를 보면, 속박감은

간접효과가 유의한 반면, 우울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은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지각된 불공정성이 우울을 부분 매개로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된 불공정성과 자살위험 간의 관계에서 우울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속박감이 매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양은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불공정성을 ‘한국사회에서 받는 대우’로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BJW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이 심리적응이나 정신건강 등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김은하 외, 2017; Sutton & Douglas, 2005), 추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의 매개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우울이나 자살사고에 있어 위험도가 큰 임상군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임상군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0대 여성의 우울은 속박감과 함께 작용했을 때 자살사고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속박감을 자살의 핵심원인으로 설명한 여러 이론(Baumeister, 1990; Gilbert & Allan, 1998; Johnson, Gooding & Tarrier, 2008; Williams, 1997)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속박감이 지각될 때 우울이 유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Brown과 Harris, Hepworth(199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였다. 20대 여성의 경우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고 해서 바로 우울을 통한 자살사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세상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속박감을 느낄 때 우울이 높아지면서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세상에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이를 경험하는 한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불공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을 보여 수정이나 변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Dzuka & Dalbert, 2002; Lucas et al., 2007). 따라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개입에서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변화가 쉽지 않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는 비교적 변화의 가능성이 큰 인지적, 정서적 측면인 속박감과 우울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살사고를 보이는 20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속박감과 우울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가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중매개의 경로를 고려할 때, 자살사고를 보이는 20대 여성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는 속박감에 먼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높은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자살사고는 속박감을 거쳐 우울로 이어진 후 자살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실치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전체행동은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작용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통제 가능성이 큰 반면, 느끼기와 생리작용은 행동과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권석만, 2013). 이에 비추어 볼 때, 통제 가능성 즉, 변화의 가능성이 큰 생각에 해당하는 인지적 요소인 속박감에 먼저 접근해 이를 통해 정서적 요소인 우울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자살사고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속박감은 우울을 진화론적 관점인 저지된 방어모델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높은 동기 수준에 주목한 저지된 방어모델은 방어시스템이 차단되면서 속박감이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종선·조현주, 2012). 그에 따라 속박감은 현재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는 높지만 그런 상황과 상태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속박감에서 핵심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벗어날 수 없다는 지각 사이에서 탈출구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속박감이 높아져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생각하는 20대 여성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벗어날 수 없다는 지각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이 속박감을 느끼는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속박감,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주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 기존에 자살 위험군으로 알려진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었고, 또한 실제 자살 실행에 있어 남성이 높은 자살률을 보여 자연스레 관심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대 여성의 자살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주요한 사회 담론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O' Connor(2011)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토대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경로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이 제시한 동기 이전 단계의 배경요인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두고 동기 단계의 핵심요인인 속박감과 자살사고에 정서적 요인인 우울을 모형에 추가하여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이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속박감을 거쳤을 때 우울이 높아지고 자살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로를 밝혀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

셋째, 20대 여성의 자살사고 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살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보고되는 우울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주요한 단면들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웅·임란, 2014; 정안숙, 2015; 최가희, 2018). 또한, 스트레스 상황은 우울의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그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우울과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자 20대 여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사회적 요소인 공정성 문제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면서 느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인지와 정서적 반응 즉, 속박감과 우울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혀 자살사고 문제를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요소의 통합되고 확장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이라는 특정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정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한 의의는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거나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분포가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인구분포 비율과 유사하지 않을 수 있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패널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또한 종단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속박감이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적 연구의 한계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다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으로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고, 방어적인 태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응답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은영·최바울·이소연·이은지·서영석(201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제1호. 63-81.
- 권석만(2013). 현재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명원(2012).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영·이정숙(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39권 제5호. 651-661.
- 김송희(2015). 대학생의 속박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20).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하·김도연·김수용(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고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7권 제5호. 25-45
- 김은하·김도연·박한솔·김수용·김지수(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9권 제3호. 689-710.
- 김은하·김수용(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8권 제1호. 1-22.
-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4호. 643-667.
- 김은하·전주원(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주의 태도”. 인간이해. 제40권 제1호. 1-21
- 김재우(2018). “한국사회 청년층의 자살 생각 결정요인: 성별 및 거주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93-126.
- 김정호·홍혜영(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

- 과 외적속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7권 제1호. 391-413.
- 김창환·오병돈(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제53권 제1호. 167-204.
- 김현수·이현정·장숙량·이기연·주지영·박건우(2022). 가장 외로운 선택. 서울: 북하우스.
- 김현정·황의갑(2011).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5권 제1호. 75-110.
- 김희선(2021). “코로나 19 이후 20 대 여성 자살률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인과 목회신학적 성찰”. 신학연구. 제78권. 199-228.
- 노민정(2021).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 및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정서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호. 173-184.
- 박병급(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31권. 207-235.
- 박수진·김종남(2018).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0권 제3호. 877-908.
- 박정은·권해수(2020). “대학생의 패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을 통한 좌절된 소속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8권 제2호. 305-327
- 박지숙·김화연·이숙중(2021). “20대 여성들의 코로나 19 로 인한 불안이 정부신뢰와 공동체신뢰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코로나블루와 코로나레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3호. 95-117.
- 배진희(2009). “노인의 상실, 학대경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4권. 49-69.
- 보건복지부(2021a). 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1b).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자살예방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 서미순(2005).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연주·김지애(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 손신영(2014).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1606-1614.

- 신민섭(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혜진(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5호. 413-437.
- 안세영·김종학·최보영(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제3호. 385-405.
- 양선미(2019). 초기성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자살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은정·노해림·박재현·전홍진·심은정(2019). “지각된 불공정성과 자살위험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1권 제2호. 477-501.
- 오병훈(2006). “노인자살문제와 예방”. 임상노인의학회지. 제7권 제1호. 88-92.
- 육성필(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소미(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과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비·신예림·윤명숙(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 369-389.
- 이수인(2016).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영향 요인과 심리적 영향 요인의 통합적 접근”.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0권. 104-139.
- 이웅·임란(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4호. 93-122.
- 이종선·조현주(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1호. 239-259.
- 이희용(2020). 청년층 자살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인구보건복지협회(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조사 결과 발표자료.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 장선희·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8호. 27-55.
- 장숙량(2020). “청년의 건강과 건강불편등: 두나라 이야기”. 2020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 전점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1호. 59-76.
- 전현규·심재문·이건창(2015). “국내성인에 있어서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2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264-281.
- 전홍진(2011). “우울증과 자살”. 대한의사협회지. 제54권 제4호. 370-375.
- 정선희(2021).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젠더감수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안숙(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제3호. 667-683.
- 최가희(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0권 제2호. 249-271.
- 최바울·고은영·이소연·이은지·서영석(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3호. 693-716.
- 최소희(2021). 20-30대 성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울분에 미치는 영향: 자비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주·신혜진(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불안의 관계: 속박감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2권 제3호. 19-3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 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귀영(2020). “N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열린정책. 제5권. 90-103.
- 홍남영(2020).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정송·노연경(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5호. 153-179.
- Ayyash-Abdo, H.(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39(4), 459-475.
- Bai, Q., Huang, S., Hsueh, F. H. & Zhang, T.(2021).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e ideation: A crumbled belief in a just world.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0, 106679.

- Baumeister, R.(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rådvik, L., Mattisson, C., Bogren, M. & Nettelbladt, P.(2008). Long-term suicide risk of depression in the Lundby cohort 1947-1997- severity and gende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7(3), 185-191.
-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1), 30-42.
-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25(1), 7-2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zuka, J. & Dalbert, C.(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About the belief in a just world's impa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Fischer, A. R. & Holz, K. B.(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Gijzen, M. W., Rasing, S. P., Creemers, D. H., Smit, F., Engels, R. C. & De Beurs, D.(2021). Suicide ideation as a symptom of adolescent depression. A network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8, 68-77.
- Gilbert, P. & Allan, S.(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3), 585-598.
- Goldney, R. D., Dal Grande, E., Fisher, L. J. & Wilson, D.(2003).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of major depression for suicidal ideation in a random and representativ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3), 267-272.

- Hayes, A. F.(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Hunt, I. M., Kapur, N., Robinson, J., Shaw, J., Flynn, S., Bailey, H., ... & Appleby, L.(2006). Suicide within 12 months of mental health service contact in different age and diagnostic groups: National clinical surve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8(2), 135-142.
- Johnson, J., Gooding, P. & Tarrier, N.(2008). Suicide risk in schizophrenia: Explanatory model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Schematic Appraisal Model of Suicide (SAM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1), 55-77.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199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1), 25-46.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yu, S. & Sun, J.(2020). How does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ffect mental health among the older adults in China? Evidence from panel data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7, 612-619.
- MacKinnon, D. P., Fairchild, A. J. & Fritz, M. S.(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
- O'Connor, R. C.(2011). Towards an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preven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 181-198.
- Otto, K., Boos, A., Dalbert, C., Schops, D. & Hoyer, J.(2006). Posttraumatic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of flood

- victims: The impact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5), 1075-1084.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smussen, S. A., Fraser, L., Gotz, M., MacHale, S., Mackie, R., Masterton, G., ... & O'Connor, R. C.(2010). Elaborating the cry of pain model of suicidality: Testing a psychological model in a sample of first-time and repeat self-harm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1), 15-30.
- Reynolds, W. M.(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cholten, S., Velten, J. & Margraf, J.(2018). Mental distress and perceived wealth, justice and freedom across eight countries: The invisible power of the macrosystem. *Plos One*, 13(5), 1-20.
- Sloman, L. & Gilbert, P.(2000). *Subordination and defeat: An evolutionary approach to mood disorders and their therapy*. Routledge.
- Sutton, R. & Douglas, K.(2005). Justice for all, or just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637-645.
- Tarsafi, M., Kalantarkousheh, S. M. & Lester, D.(2015). The defeat-entrapment theory versus Beck's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nd suicidality: a cross-national analysis in Ir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8), 777-780.
- Taylor, P. J., Gooding, P., Wood, A. M. & Tarrier, N.(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tin*, 137(3), 391-420.
- Teismann, T. & Forkmann, T.(2017). Rumination, entrapment and suicide ideation: a medi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4(1), 226-234.
- Williams, J. M. G.(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London: Penguin Books.

Yang, E. J. & Shim, E. J.(2022). Does belief in a just wor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and suicide risk in university stud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1.

Abstract

The Effects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Among women in their 20s: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Misook Kang*·Hana Kim**·Sun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Just World and Entrapm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in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women in their 20s using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and a total of 354 women participated.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1.0 and PROCESS Macro,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rrelation analysis on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and Depression, the double-mediated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women in their 20s

* 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C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CHA University

*** Co-Author: Director, The psychotherapy and research institute: person and person